

서양인의 눈에 비친 조선사람, 조선풍물

19세기말 ~ 20세기초 조선 방문기 여럿 출간, 사료적 가치 커

서양인을 보면 ‘도깨비’라고 여겼을 만큼 외국과의 교류를 차단했던 조선사회에 각기 다른 목적과 인연으로 발을 딛게 된 서양인들의 눈에 비친 조선과 조선인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그리고 그들은 그러한 모습의 조선을 어떻게 평가했을까. 조선을 다녀간 서양인들의 기록을 담은 책들은 이런 것들을 밝혀줄 좋은 자료로 흥미를 끈다.

1954년 사학자 이병도 박사가 역주를 달아 펴낸 《하멜표류기》로 첫 선을 보인 서양인들의 조선방문기는 이후 고종황제의 고문이었다던 W.F. 샌즈의 《조선의 마지막날》스웨덴 출신 기자인 아손 그레스트의 《코레아 코레아》, 캐나다 출신의 기자 매켄지의 《한국의 비극》, 미국 선교사 헐버트의 《대한제국의 멸망》, 미국 동양학자 그리피스의 《은둔의 나라 한국》, 주한미국공사였던 알렌의 《알렌 일기》 등이 나왔고, 최근 들어서 또 여러 권의 책이 출간되어 관심을 더하고 있다.

구한말 기록이 다수 차지

서양인들의 출입이 가장 많았던 시기는 아무래도 19세기 말~20세기 초이고, 조선을 살핀 이방인들의 기록도 당연히 이 시기에 몰려 있다.

영국 왕립지리학회 회원이었던 이사벨라 버드 비숍(1831~1904)여사가 1894년부터 4차례에 걸쳐 한국을 방문, 약 11개월간 현지답사를 하면서 목격한 바를 기록한 《한국과 이웃나라들》(이인화 옮김, 살림)은 학자다운 실증성과 여성다운 꼼꼼한 시각이 돋보이는 책이다. 길가에 버려진 쓰레기의 내용물부터 식생활, 결혼식 순서, 장례식 순서, 한국 귀신들의 계보, 기생의 춤과 무당의 춤, 당시의 유행가 등 당시 조선인들의 문화와 생활풍습과 함께 상품의 품질과 가격, 숙박요금, 하루저녁 술먹고 노는 데 드는 비용 등 경제·사회학적 지표를 밝혀줄 만한 내용도 있다.

이밖에도 고종이나 민비, 대원군, 박영효 등 당시 정국의 주요 인물뿐 아니라 거만한 양반, 돈박히는 승려 등에 이르기까지 인물들에 대한 원숙하고도 날카로운 분석도 당시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자신이 머무는 방의 크기를 재고 온도를 기록하는

전혀 다른 역사와 가치관,

문화를 지닌 서구인들의

조선 관찰기들은 때로 편견과

무지, 그릇된 사관에서 비롯된

인식의 오류를 범하기도 하지만

당시의 시대상황을 밝혀줄

귀중한 사료로서 가치를 지닌다.

또 조선인의 인심이 후하고

친절하다는 공통적인 지적이

지금도 살아있는지 되새겨 볼직하다.

등 철저한 실증적 자세와 함께 여러 나라를 여행하며 겪은 다양한 경험과 분별력 있는 안목은 이 책의 자료적 가치를 더 높여준다.

《조선의 풍속과 선교》(심현녀 옮김,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는 1888년 미북장로교 소속으로 입국하여 새문안교회, 언더우드 학당, 육영공원 등에서 목회와 교육에 전념하다 1900년 이질에 걸려 조선에서 삶을 마감한 선교사 다니엘 기포드가 남긴 기록이다. 조선인들의 일상생활 모습과 풍습을 비롯하여 지리적, 위치, 자연환경, 역사, 경제활동, 교육제도, 신앙활동 등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소설 자본론’으로 일컬어지는 《강철군화》로 잘 알려진 미국의 사회주의 작가 잭 런던도 우리나라를 다녀간 기록을 남겼다. 《조선사람 엿보기》(윤미기 옮김, 한울)라는 제목으로 옮겨진 이 책은 그가 1904년 러·일전쟁을 중군취재하면서 본 조선과 조선인에 대한 기록이다. 이 책을 펼치는 순간 부딪치게 되는 것은 조선인에 대한 이해와 애정은 눈썹만큼도 없이 편견과 무지에 가득차 경멸과 냉소로 조선과 조선인을 바라보는 잭 런던의 얼음장같은 시선이다. 가령, “한국 사람에게 일본의 점령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의 원천이었다...”거나 “정말로 한국인은 지구상의 그 어떤 민족 중에서도 의지와 진취성이 절대 부족한 가장 비능률적인 민족이다”와 같은 것이 그것으로, 내 조상이 근거없이 홀대당하는 현장을 목격하는 것처럼 당혹스럽고 마음 쓰라린 분



양철물지계를 진 어는 물장수.
《코레아 코레아》(미완) 중.

노가 느껴지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오류와 편견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당시 시대상황을 이해하는 데는 유익한 자료로서 가치를 지닌다. 일본군에게 끌려가서 군수품을 운반하던 조선의 짐꾼들의 뺨에 칠해졌던 붉은 점이나 보라색 점들, 일본군들의 군수품과 비상식량들의 종류와 모양, 패전한 러시아 부상병의 모습 등을 리얼리즘에 충실한 작가답게 사실적으로 그려내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의 시점에서도 귀중한 자료

한편, 앞의 책들과는 성격을 달리하지만 서구인의 조선방문 기록에 대한 연구서도 나와 눈길을 끈다. 《우리는 코레아의 광대였다》(강준식 지음, 웅진출판)가 그것인데 이 책은 1653년 나가사키를 향해 항해하던 네덜란드 상선 스페르베르호의 하멜 일행이 돌풍을 만나 우리나라에 표박, 귀항하기까지 13년간의 생활을 기록한 보고서(우리에게는 《하멜표류기》라는 이름으로 알려진)에 대한 연구서다. 저자는 잠시 스쳐지나 방문기가 아니라 13년간이나 조선의 옷을 입고, 음식을 먹고, 조선말로 의사소통을 하면서 조선에서 살았던 사람의 기록이라는 점에서 하멜의 보고서가 지니는 가치에 주목, 국내 사료와의 비교 연구를 통해 하멜 보고서를 오늘의 시점에서 읽어내는 데 주

력한다.

전혀 다른 역사와 가치관, 문화를 지닌 서구인들의 조선 관찰기들은 때로 편견과 무지, 그릇된 사관에서 비롯된 인식의 오류를 범하기도 하지만 당시의 시대상황을 밝혀줄 귀중한 사료로서 가치를 지닌다. 하멜 보고서를 연구한 강준식씨는 “조선을 방문하고 기록을 남긴 서구인들의 대부분이 지식인이었으며 사실적인 기록을 남기려 애썼다”고 평가하고 이들 책에 대한 깊이있는 연구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는 “폐쇄적인 수구정책으로 서구의 과학기술 수입에 뒤졌고 외교적인 역량도 갖추지 못했던 조선의 낙후함과 비참한 말로를 지켜본 서구 이방인들의 평가는, 나날이 발전하는 첨단과학기술을 둘러싼 국가간의 치열한 경쟁의 틈바구니에 처해 있는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이 기록들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또다른 이유를 설명한다.

“조선인들은 인심이 후하고 지나치게 친절할 민족이다. 그 친절함에는 특징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끄는 주요한 요소가 있다.” “집집마다 순번을 정해 나그네를 대접하는 마을이 많은데 이에 대해 어느집도 군소리를 하지 않았다” 등 서방인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했던 ‘아름다운 조선인의 마음씨’가 지금 우리에게도 있는지 되새겨보게 하는 것도 이 책들의 미덕이다. —박남정 기자